

W_F_629

아들 낳게 해 주는 설문대할망

2018년 10월 29일, 제주시 이도2동 신설동경로당, 이현정 조사.

송순자(여, 1944년생, 제주시 이도2동)

- 제주시 연동에서 출생, 결혼 후 이도1동 부근에 거주하다가, 20여 년 전 이도2동으로 이주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다.

- 줄거리: 설문대할망은 키가 커서 쉽게 한라산 정상에 올랐다. 한라산 정상(백록담)의 물은 설문대할망이 바다와 연결되도록 뚫어 놓은 것이다. 아직도 한라산 정상에는 설문대할망이 엉덩이를 대고 쉬었던 넓적한 돌이 남아 있다. 설문대할망은 한라산의 물을 차지한 신인데, 특히 아들을 못 낳는 부녀자들이 한라산에 가서 설문대할망에게 정성스레 기도를 드리면 효험이 있었다.

[조사자] 설문대할망 얘기는 들어난 거 엊우과?

[제보자] 가운데. 저 한라산 꼭대기에 그디 그것이 설문대할망이 경허난 물 싸고 들고 헌덴 허잖아.

한라산 꼭대기에 물. 그 설문대할망이 열두 번 쉬난 그 한라산 꼭대기에 올라간덴. 경허난 그 한라산 꼭대기도 할망으로 헨 바당물이 연결된다 헤여. 싸곡 들곡 경험헌덴. 저 설문대할망 경헤 낫덴 헤영.

그디 올라가믄 설문대할망 앗아난 덴. 자리는. 영 궁등이영. 영 거 돌도 보믄 넓적허게 잇더라 헤. 우리 한라산에 강 베려보믄.

[조사자] 설문대할망 얘기는 예전부터 어떻 어무니네가 막 골아낫우과?

[제보자] 우리 처녀 때부터, 그 이디 할망덜 하다이 그 말 골아낫주게.

[조사자] 그믄은 한라산은 설문대할망 산이꽈?

[제보자] 경허난 그 대강은 한라산은 그 설문대할망이 그 물을 츄지허니까. 한라산 가그네 설문대할망 위헌덴 헤연.

얘기도 아덜 못 나믄 그디 강 기도도 허곡. 막 얘기도 낫덴 헤여그네, 얘기 못 헤난 사람들은 한라산에 강. 그디 강 기도도 막 허곡 헤엿잖아.

[조사자] 설문대할망은 생긴 건 어떻하던 헹니까?

[제보자] 키가 크던 허더라. 경허난 그때 우리 베려보난이. 저 부산서도 그 설문대할망신 디 얘기, 뜰만 나나네 자기가 뜰이 일곱이렌. 못 나나네 이제 그 산에 일 년에 한 번씩 기도 드리레 왓인디. 아덜 낫젠.
허멍. 우리 그때 그거 들어낫저. 경밸인. 저 설문대할망은이 한라산에서 많이. 경허나네 열두 번 쉬난 한라산 꼭대기에 올라갓젠헤라. 게난 얼마나 허우대가 좋은 할망이가.

[조사자] 오롬 그뜬 건 만들었던 안하고?

[제보자] 아니. 그거는 그런 말은 못 들었어.

- 핵심어: 설문대할망, 한라산, 백록담, 아덜(아들), 기도